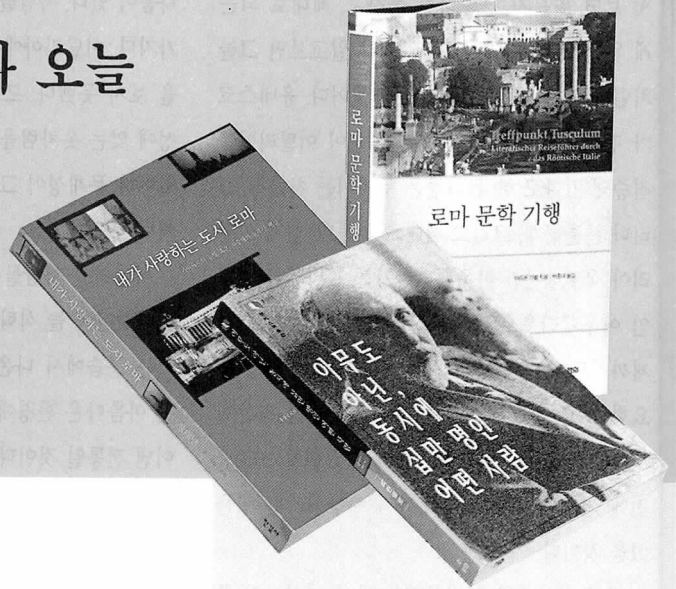


# 책으로 만나는 이탈리아의 어제와 오늘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본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예술 다룬 서적이 주종 이뤄

서점가에는 이탈리아에 관한 책들이 많이 출간돼 있다. 이들 책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행문.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과 미술, 건축이 주된 테마다. 어린이 책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최근 들어 움베르토 에코를 필두로 이탈리아 칼비노, 루이지 피란델로 같은 이탈리아 현대문학의 주요 작가들도 활발히 소개되고 있다.



한 나라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직접 여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누구나 그런 기회를 누릴 수는 없다. 시간과 돈이라는 족쇄가 발을 묶는 탓이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책을 읽는 것이다. 책이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몇천년의 시간을 거슬러 오르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다. 서점에 가보자. 운이 좋으면 단돈 몇천원으로 알짜배기 이탈리아 여행을 즐길 수 있을 테니까.

## 책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여행

이탈리아 여행기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책은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괴테, 박영구, 푸른숲)이다. 괴테가 베네치아와 피렌체, 로마, 나폴리 등 이탈리아 전역을 여행하고 느낀 감회를 담았다. 시인의 섬세한 관찰력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다. 괴테의 눈에 비친 18세기 이탈리아의 모습이 펼쳐지는 가운데 예술에 대한 괴테의 지고한 관심을 읽을 수 있다. 《괴테가 사랑한 로마, 사랑한 여인들》(로베르토 차펠리, 장혜경, 오늘의책)은 '인간 괴테'를 느낄 수 있는 책이다. 괴테가 느꼈던 로마에 대한 인상이 그의 연애담과 함께 펼쳐진다.

이탈리아의 음악과 미술을 소개한 책도 출간돼 있다. 《유럽음악기행1》(황영관, 부키)은 클래식 음악 거장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음악 답사기다. 기행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여행 가이드

북에 가깝다. 《이탈리아 음악기행》(권터 앵글러, 이수영, 백의)은 읽는이를 오페라 공연의 현장으로 안내한다. 주요 음악제 개최 도시와 시기, 공연내용은 이 책을 읽으면서 덩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다. 이 밖에도 이탈리아의 민요를 묶은 《이탈리아 민요선집(전3권)》(박찬중, 현대음악출판사)이 있다.

음악에 귀가 트이지 않았다면, 그래서 클래식을 괴로워하는 독자라면 《로마 문학 기행》(마리온 기벨, 박종대, 백의)이 좋겠다. 카를루스에서 아우구스티누스까지 로마의 인물들을 14장에 걸쳐 연대순으로 소개했다. 오비디우스가 태어난 도시를 둘러볼 수도 있고, 풍자의 대가 유베날리스가 동시대인들을 조롱했던 신랄한 해학도 엿볼 수 있다.

영화를 좋아하는 독자들을 배려한 책도 있다. 《문화와 예술로 보는 이탈리아 기행》(다나카 세치코, 정선이, 예담)은 스크린 위에 펼쳐진 이탈리아의 풍광과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책이다.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달콤한 인생>에 나오는 트레비 분수, 오드리 헵번이 주연한 <로마의 휴일>의 배경인 스페인 광장 등 영화로 낮은 명소를 만날 수 있다.

《내가 사랑한 도시 로마》(정태남, 한길사)는 성 베드로 성당 등 이탈리아의 건축물에 대한 에세이를 묶은 책이다. 건축에 관한 전문적인 시각이 지은이가 여행 중 겪은 에피소드와 어우러져

흥미를 더한다. 《이탈리아 건축》(편집부, 집문사)은 1945년에서 1985년 사이에 지어진 대표적인 이탈리아 건축물에 관한 책. 《이태리 르네상스 건축사》(주남철, 고려대출판부)도 나와 있다.

## 이탈리아의 화가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다. 이탈리아는 한때 세계의 중심이었다. 그런데 길만 로마로 통한 것은 아니었다. 서구문화의 정수가 로마로 모였다.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발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야콥 부르크하르트, 안인희, 푸른숲)는 기념비적인 저작이다. 이 책 이후 '르네상스'라는 말이 쓰이게 됐을 만큼 르네상스사 연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증적인 사료를 바탕으로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사를 총체적으로 해부했다. 이탈리아 정치사와 인문주의의 발전과정, 시대상 등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이탈리아가 가장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것은 단연 미술분야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 대가들을 배출한 이탈리아의 미술은 세계 미술계를 이끌어 왔다.

《르네상스의 이태리 화가들》(버나드 베른슨, 최승규, 한명출판사)은 르네상스를 한층 더 풍요롭게 한 화가들에 대한 평전. 베네치아, 피렌체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화가들의 작품이 도판과 함께 설명돼 있다. 미켈란젤로의 예술과 일생을 다

룬 책도 나와 있다. <한길로로로> 시리즈로 나온 <미켈란젤로>(하인리히 코흐, 안규철, 한길사)는 미켈란젤로가 남긴 편지와 대화기록, 각종 계약서를 통해 그의 성격과 행동을 세밀하게 그려냈다. 미켈란젤로는 “괴짜, 건방진 몽상가, 화를 잘 내는 불평쟁이”가 아니라 “노련한 사업가며, 지독한 구두쇠였으며 집안 걱정에서 달린 가장”이었다는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어빙 스톤의 소설 <르네상스인 미켈란젤로(전3권)>(성로, 가치)도 나와 있어 비교해 읽는다면 흥미로울 듯하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평전 <레오나르도 다빈치>(세르주 브라미, 엄명순, 한길사)도 있다.

### 활발히 소개된 이탈리아 대표작가들

국내에 소개된 대표적인 이탈리아 작가는 움베르토 에코와 이탈리아 칼비노다. 두 작가는 각각 추리소설과 환상소설이라는 장르로 국내 독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기호학자

이기도 한 움베르토 에코

는 일반독자들에게

는 <장미의 이름(전2권)>(이윤

기, 열린책들)을

쓴 베스트셀러 작

가로 더 유명하다.

윌리엄 수사가 살

인사건을 해결하

는 과정을 추리소

설 기법으로 그렸다.

이밖에도 국내에 출간

된 에코의 소설로는

<푸코의 진자(전3권)>

<전날의 섬(전2권)>(이상

이윤기, 열린책들)이 있다.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이세욱, 열린책

들)은 에코의 재치를 엿볼 수 있는 칼럼집이다.

1990년대 중반 환상문학이 문단과 독자 사이에 주목받으면서 보르헤스와 마르케스를 비롯한 중남미 작가들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이때 이탈리아 환상문학의 거장 이탈리아 칼비노도 함

께 소개됐다. 그의 작품의 특징은 동화형태를 통해 인간존재의 깊음 심연을 탐구한다는 것. 민음사에서 <이탈로 칼비노 선집>으로 <반쫂가리 작작>(이현경)을 비롯해 총 4권이 출간됐다. 열린책들에서 출간된 <코스미코미케>(김운찬)는 ‘글쓰기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기호학에 대한 성찰을 엿볼 수 있는 책이다.

이 밖에도 여러 이탈리아 작가들이 국내에 소개돼 있다. 루이지 피란델로는 193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탈리아 문학의 거장이다. 그의 소설 <아무도 아닌, 동시에 십만 명인 어떤 사람>(김효정, 문학과지성사)은 사랑에 대한 서른 아홉가지 이야기를 퍼즐 조각처럼 서술한 소설. 돈과 물질에 기반한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읽을 수 있다.

이탈리아 참여문학의 대표작가인 이그나치오 살로네의 <폰타마리>(유혜자, 아래오)도 국내에 소개됐다. 이 책은 1920년대 이탈리아 농민들의 가난과 억압을 고발한 작품인데, 익살스러운 풍자가 돋보인다. 그리고 건망증이 심한 신의 이야기를 그린 <내가 신이다>(프랑코 페루치, 김석희, 문학동네), 붓다의 삶을 소설화한 <싯다르타>(파트리치아 켄디, 이현경, 민음사), 영화감독으로 더 잘 알려진 피에르 파올로 파졸리니의 <폭력적인 삶>(박명욱 외, 세계사), <로마의 여자>(알베르토 모라비아, 이윤기, 둥지) 등이 출간됐다.

시집으로는 <아이네이드>(버질, 김명복, 문학과의식)가 번역돼 있다. 로마의 건국과 아우구스투스의 영광을 노래한 트로이의 장수 ‘아이네아스’의 이야기를 노래한 서사시다.

<로마인 이야기> 시리즈와 마키아벨리 평전

아동물도 번역돼 있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이 <피노키오>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피노키오>는 이탈리아 작가 카를로 콜로디가 쓴 장편동화다. 창작과비평사에서 <삐노키오의 모험(전2권)>(이현경, 창작과비평사)으로 완역됐다. <어릿광대 자코모>(마리아 스트리아네세, 안진원), <파란 산앵두 마녀 밀루>(로렌차 파리나, 김홍래), <사랑을 나누는 꿈 보로>(라파엘라 마리아 룬디니, 김홍래), <여덟가지 진짜 이야기>(에지디오 산단게, 김홍래, 이상 서광사) 등도 나와 있다.

이탈리아의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

을 수 없는 인물이 시오노 나나미다. 그가 쓴 <로마인 이야기> 시리즈는 인문·역사서로는 드물게 대중의 사랑을 받은 경우다. 연대기적 서술을 피하고 로마의 흥망사를 이야기하듯 풀어쓴 점이 독자들의 큰 호응을 얻어 베스트셀러가 됐다.

로마에 관한 그의 다른 저작으로는, 르네상스 시대 4명의 교황을 다룬 <신의 대리인>(김석희), 베네치아 공화국의 역사를 조명한 <바다의 도시 이야기(전2권)>(정도영), 처음으로 이탈리아 통일의 야망을 품은 인물이자 <군주론>(마키아벨리)의 모델이 되기도 했던 체사레 보르자의 일대기를 그린 <체사레 보르자 혹은 우아한 냉혹>(오정환, 이상 한길사) 등이 있다.

마키아벨리는 어쩌면 이탈리아가 낳은 가장 위대한 인물인지도 모른다. 공화주의자로, 군주론자로, 냉혹한 정치이론가로 그리고 시인으로 불리우는 마키아벨리만큼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도 드물다. 마키아벨리 관련서적은 국내에 20여종이 소개돼 있는데, <대우학술총서> 제484권으로 출간된 로베르토 리돌피의 <마키아벨리 평전>(곽차섭, 아카넷)은 마키아벨리 평전의 결정판이다. 지은이가 7차례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펴낸 이 책에서 냉혹한 정치이론가 마키아벨리 뿐만 아니라 ‘고독한 인간’ 마키아벨리의 면모도 읽을 수 있다. 시오노 나나미의 <나의 친구 마키아벨리>와 <마키아벨리 어록>(이상 오정환, 한길사)도 흥미로운 저작이다. 그는 마키아벨리를 “현실정치와 윤리를 구별한 근대정치학의 선구자”라 규정한다. 1502년 체사레 보르자 궁정에서 이뤄진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마키아벨리의 대면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마키아벨리>(로저 마스터스, 송은경, 세종서적)도 나와 있다.

이 밖에도 이탈리아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책으로는 <유시민과 함께 읽는 이탈리아 문화 이야기>(유시민, 푸른나무), <이야기 이탈리아 아사>(후지사와 미치오, 임희선, 일빛), <이탈리아 민족부흥운동사>(루이지 살바토렐리, 곽차섭, 한길사), <이탈리아인 태고의 지혜>(이원두, 둥문선) 등이 있다. — 최갑수 기자

